

최태원 “반도체 임팩트는 서곡… AI, 기업 성패 기준될 것”

〈SK그룹 회장〉

플랫폼 9와3/4 ‘슈퍼 모멘텀’ 발간 표지 앞뒷면 HBM 디자인 형상화 최 회장, SK하이닉스 스토리 담아

“고대역폭메모리(HBM) 스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한 SK하이닉스의 성공과 AI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출판사 플랫폼 9와3/4이 발간한 신간 ‘슈퍼 모멘텀’(부제: SK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에서 만난 2위 기업이 1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무(無)에서 시작한 원천 기술을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피, 땀, 침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책은 시총 545조 원, 영업이익 44조 원. AI 물결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SK하이닉스의 HBM 개발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HBM은 국가



슈퍼 모멘텀 표지.

/플랫폼 9와3/4

전략 자산이 됐고, 전 세계 인프라 설계에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대외 협상력의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또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기업의 결정과 리더십이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AI 패권 시대다. 하이닉스의 2025년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전략과 집념이 AI라는 슈퍼 모멘텀을 만나 기세로 분

출된 시기다.

최근 2~3년, 시대 전환을 이끈 테크·AI 기업을 집중 연구하던 저자들은 결정적인 AI 병목을 해결한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주목했다.

이 책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HBM 독심’이 노트(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최초의 시제품인 ‘HBM0’, HBM2의 실패와 리디자인한 ‘HBM2 제2’ 등 SK하이닉스의 개발 역사를 들여볼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AMD가 ‘언더독 동맹’을 결성하고 세계 최초의 HBM을 완성한 스토리부터,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주도권을 잡은 발판이 됐던 ‘SK하이닉스-엔비디아-TSMC’의 삼각동맹까지의 서사도 담겼다.

최 회장은 책에서 “2021년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처음 만났을 때 ‘AI 비전’에 확신을 가졌다”고 회고한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3부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전략적 동맹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켰다. 두

회장의 ‘하드코어 협업’이 없었다면 2023년 이후 AI 스케일업은 지금 같은 속도로 폭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책에서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며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I 생태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운명 등 모든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책 표지 앞뒷면에는 실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HBM 디자인이 형상화돼 있다. 손톱만 한 공간에 최대 16단을 쌓아 올린 구조도를 상상하면 AI 시대의 문을 연 기술의 집적도를 체감할 수 있다. 이 책은 ▲1장 ‘더 베틀(The Bet) 승부수, 판을 바꾸다’ ▲2장 ‘더 빌드(The Build) 집념을 쌓아 벽을 넘다’ ▲3장 ‘더 피벗(The Pivot) 다시 큰 꿈을 그리다’ ▲마지막 ‘최태원 노트: 우리는 길목에서 있었다’ 순으로 정리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27일 국내 출시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출시

삼성전자가 성능부터 디자인, AI 사용성 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AI PC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오는 27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더욱 얇아진 두께부터 로고 위치, 키보드, 탭터치패드 등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재구성됐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최대 50 TOPS(초당 최고 50조 회 연산)의 성능을 갖춘 신경망 처리 장치(NPU)는 이미지 편집, 텍스트 변환, 검색 등 AI 기반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전작 대비 2배 수준인 최대 1000니트 HDR 밝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cm(16형)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는 40.6cm(16형)과 35.6cm(14형) 두 가지 사이즈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셀토스 완전변경… 소형 SUV 시장 ‘HEV’ 승부수

〈하이브리드〉

이전 세대 대비 전장·전폭 확장 HEV 모델 추가 등 상품성 개선

기아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절대 강자인 셀토스의 완전 변경 모델을 7년 만에 국내 출시했다. 특히 2세대 셀토스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디 올 뉴 셀토스’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고 오는 27일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셀토스는 2019년 1세대 모델 출시와 함께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33만대 이상 판매되며 소형 SUV 시장에서 최고 인기 모델로 자리잡았다. 출시 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아는 신형 셀토스 출시로 올해 국내에서 5만5000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자신감은 2세대 셀토스의 탄



지난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미디어데이에서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 차량이 전시돼 있다. /양성운 기자

탄한 기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셀토스는 소형 SUV임에도 넉넉한 실내 공간 제공한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을 40mm, 휠베이스를 60mm, 전폭을 30mm 확장했다. 제원은 전장 4430mm, 휠베이스 2690mm, 전폭 1830mm, 전고 1600mm다. 실제 차량에 탑승하면 실내 공간이 넓어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1.6하이브리드와 1.6가솔린 총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전방 교통 흐름 등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적용해 주행 중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2세대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대 복합연비는 각각

리터당 19.5km, 12.5km이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1.6가솔린 터보 모델은 2477만~3217만원, 1.6하이브리드 모델은 2898만~3584만원이다. 가솔린 모델 기준 1세대 대비 200만원 가량 인상됐다.

손용준 국내상품 1팀장은 “플랫폼과 디자인 변경에 각종 사양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며 “경쟁차 대비해 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셀토스는 27일부터 계약을 개시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출고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은 “고객들은 그동안 셀토스에 더 효율적인 연비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더 넓은 공간을 요청했고 디 올 뉴 셀토스는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며 “강인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탁월한 연비 효율성을 담아낸 셀토스로 소형 SUV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한항공, 군집 AI 등 무인기 기술 개발 박차

파블로항공 투자… 안정적 성장 지원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 협력 강화”

대한항공이 국내 드론 전문 기업 파블로항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기 사업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 지배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파블로항공과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파블로항공은 차세대 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군집 AI는 새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드론이 군집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파블로항공은 총 5단계인 군집 조율 기술 가운데 국내 최초로 4단계 진입에 성공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항공은 미래 중추 사업인 항공 우주 분야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대한항공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AI 자율 비행 알고리즘, 통합 관제 플랫폼, 중소형 무인기 개발 역량 등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파블로항공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와 벤처기업 혁신 기술을 융합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파블로항공과 군집 비행 공동 연구개발(R&D)은 물론 신규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또 무인기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교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중소·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왼쪽)과 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이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처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차현정 기자